

지방정부 협의체 지역간 교류·소통 촉진

지방분권, 선진현장을 가다

〈2〉‘프랑스 알베인’

101개 지자체 참여 시민단체

지역의원 수시로 ‘밤샘 토론’

주민세 삭감 조직적 반대 운동

전용은행 출범 재정 자립 높여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집중됐던 막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분산시킨다. 잘 사는 도시에겐 지방분권형 개헌은 악이지만, 못 사는 도시에겐 독이라는 지엽적 비난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천한 프랑스는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지자체 101곳 연합 지방정부 협의체 취재진은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시민단체 ‘프랑스 알베인(FRANCE URBAINE)’을 찾았다. 프랑스 알베인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지방정부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협의체다. 리옹, 마르세유, 니스 등 대규모 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까지 101개의 지자체가 프랑스 알베인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



프랑스 알베인(FRANCE URBAINE)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최근 회담가 되고 있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 알베인 제공>

다.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며 주민으로 따지면 프랑스 인구의 절반정도인 3000만 명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걷은 주민세 중 일부를 협의체 운영비로 쓰고 있다.

프랑스 알베인의 올리비아 랜델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척박한 여건을 가진 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광역도시권의 현안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했다”며 “프랑스 알베인이 만들어진 것은 크고 작은 도시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여러 지역에 걸친 공통된 안전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린다. 가장 큰 행사는 매년 9월께 파리 시청에서 열리는 토론회. 700~800명의 지역의회 의원 및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역의 재정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협의점을 도출할 때까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토론회가 진행된다.

랜델 회장은 “한국도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대 통해 지역 목소리 중앙에 전달 지난 5월 당선된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민세를 대폭 삭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 알베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대로 주민세가 삭감되면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주민세 수

입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프랑스 지방정부가 재정자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프랑스 알베인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랜델 회장은 “프랑스 알베인에는 101개 지자체와 3000만이 넘는 주민들이 소속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쟁력 높이는 지자체 전용 은행 진정한 지방분권은 재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프랑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개헌 이후 지방정부가 기금을 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지자체 전용 은행(AGENCE FRANCE LOCALE)을 출범했다.

2015년 출범한 이 은행에는 리옹과 마르세유 등 주요 지자체가 참여해 올 연말 기준으로 23억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지자체들은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쓴다. 일부 지자체는 이 은행을 통해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여 지하철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랜델 회장은 “최근 무디스가 지자체 전용 은행에 대해 프랑스 중앙 은행보다 신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프랑스의 지자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jiyoung@busan.com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맹장 장간지

장간지(張柬之·625~706)는 양양 출신으로 자는 맹장이다. 측천왕제 말년 정변을 시도해 중종을 복위시켜 당왕조를 부활시켰다.

경사에 밝아 진사로 천거되어 청원승에 임명되었다. 689년 현량과 장원을 차지해 갑참어사가 되고 봉각사인의 직위를 얻었다. 698년 측천왕제는 무승사의 아들 회양왕 무연수가 돌궐가한 목철의 딸을 비로 맞이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대해 “옛날부터 중국의 천왕이 오랑캐의 딸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고 간하였다. 이로 인해 사천성 합주자사로 좌천되었다. 후일 재상 적인걸의 추천을 받아 추관사랑으로 발탁되었다. 측천은 일찍이 적인걸에게 “집이 한 명의 선비를 쓰고자

니다”고 답하였다. 장간지는 “지금 그의 아들이 장씨 형제에게 위험에 빠졌는데 장군은 그의 은덕을 갚고자 하는가?” 이다조가 말하기를 “참으로 나라에 이로움이 된다면 내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로써 쿠데타 모의가 확정되었다. 이어서 환원범과 경휘를 좌·우 우위장군으로 삼아 금군(禁軍)을 맡겼다. 환원범이 계책을 자신의 모친에게 말하니 모친이 말하기를 “충과 효를 둘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먼저 나라를 생각한 뒤에 집안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태자에게 뜻을 알리니 이를 허락했다.

705년 정월 22일 마침내 정변이 일어났다. 정변군은 네 방향으로 대오를 나누어 행동을 개시했다. 첫째로 장간지가 궁중으로 통하는 길목을 장악하

무측천 퇴위 앞장...당왕조 부활시켜

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소?”라고 하문했다. 적인걸이 답하기를 “반드시 뛰어나고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면 형주장사 장간지가 있는데 비록 나이 들었으나 재상이 될 만한 인재입니다.” 황제가 일단 낙주사마로 기용하였다. 며칠 후 적인걸이 “장간지를 천거하였는데 아직 기용하지 않았습니까.”고 묻자 측천이 “장씨 승진시켰다고 답하니 “신이 천거한 사람은 재상이지 사마가 아닙니다”고 말하였다. 이에 추관사랑이 되고 궁극적으로 재상에 올랐다.

측천 말년에는 미소년 장역지와 장창종 형제가 황제 측근으로 권세를 휘둘렀다. 일찍이 재상 위원충은 황제 면전에서 “이 두 형제가 끝내는 조정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장간지는 오승, 환원범, 최현위 등과 같이 상소해 장씨 형제를 처벌할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704년 이후 건강이 악화된 측천은 오직 장씨 형제가 자기결에서 시종하게 했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했다. 태자 이현이 황위를 계승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태자와 조정대신들 간에 反張 세력이 형성되고 그 중심에 장간지가 있었다.

장간지는 우의림위대장군 이다조에게 말하기를 “장군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부귀는 누가 가져다 준 것이오?” 이다조가 눈물 흘리며 “고종임

기로 했다. 둘째로 이다조가 태자를 현무문으로 모시고 오고 장씨 형제를 죽여 측천에게 퇴위를 강요할 계획이었다. 셋째와 넷째는 태평공주와 상왕이단이 정변에 내용기로 하였다. 장간지 등은 장씨 형제의 목을 베고 측천이 잡자는 장생전을 포위했다. 측천이 놀라 일어나 물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답하기를 “장씨 형제가 반란을 꾀해 태자의 명을 받들어 주살하였습니다.” 측천이 태자를 보고 “그들이 주살되었으니 동궁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말하자 환원범이 “여러 신하들은 태종과 고종의 은덕을 잊지 못하니, 태자를 받들고 적신을 주살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셔서 하늘과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이로써 정변이 성공하였다. 25일 중종이 즉위하였다. 15년만에 당의 국호가 회복되었다.

장간지는 공으로 중서령이 되고 한 양왕에 봉해졌다. 하지만 실권은 중종에게 위황후에게 돌아갔다. 위황후는 무삼사 세력과 연합해 정변의 주역인 장간지, 환원범, 최현위, 경휘, 원서기 등 5왕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표문을 올려 호북성 양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였다. 706년에는 신주사마로 좌천되니 율문 속에 세상을 떠났다. 710년 중서령으로 추증되고 다시 한양궁중에 봉해졌다.

“여야 화합해 개헌 이뤄낸 프랑스 본받자”

배준구 경성대 교수

지방정부 세입 함께 늘려야

“프랑스는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방분권을 추진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정당들도 정파 다툼이 아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입니다.”

경성대 배준구(행정학과) 교수는 좌우정당을 가리지 않고 개헌을 이뤄낸 프랑스를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관련 없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과제이니만큼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파 정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시도해 우파 정권에서 이를 마무리한 프랑스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협의체인 프랑스 알베인 소속 회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랑스 알베인 제공>

배 교수는 또 개헌을 할 때 권한과 함께 재원의 이양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권한은 돈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

이다. 2014년 기준으로 프랑스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비중은 72.1%인데 비해 국내 지자체의 자체 세입비중은 42%로 OECD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물렀다.

개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실험법’을 명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낳더라도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3년 개헌을 추진할 때 이 법을 제정했다.

배 교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또 “프랑스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등한 계약 관계를 맺는 ‘계약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지방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적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부산일보 안준영 기자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 ▶ 삼성전자 - 120만평
- ▶ LG전자 - 110만평
- ▶ 미군기지
- ▶ 평택 항
- ▶ 고덕신도시 520만평

▣ 총 7필 지 분양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완료

1필지(약 200평)

★ 평당 200만 → 할인 13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신장동 (77평) (고덕신도시 5분, 송탄역 5분) 매가 4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경매교육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아파트 추천

- ① 광산구 신가동 대방노블랜드 (33평)
감평가 3억7백 → 최저가 2억1,500만
- ② 북구 운암동 나산아파트 (24평)
감평가 1억5천 → 최저가 1억6백
- ③ 광산구 정덕동 수원자이 (47평)
감평가 4억2,300만 → 최저가 2억9,600만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평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

- 2)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평가 11억 → 최저가 3억6천

- 3) 남구 봉선동 (상가건물)
감평가 47억 → 최저가 47억

- 4) 광산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감평가 22억 → 최저가 22억

- 5)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히딩크호텔
감평가 88억 → 최저가 62억

- 6) 동구 산수동 (상가주택)
감평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7)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4억5,600만

- 8) 광산구 비아동 (주유소)
토지 546평 건물 178평
감평가 18억8천 → 최저가 18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주택)
감평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평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 11) 북구신안동 (모텔)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12) 장성 북일면 (요양병원)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A.P.T · 주택 · 공장 등

- ① 서구 화정동 (주택)
토지 58평 건물 47평
감평가 2억4천 → 최저가 1억6천5백

- ③ 서구 마북동 (주택)
토지 67평 건물 29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1억3천

- ④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05평 건물 1,201평
감평가 39억 → 최저가 17억6천

- ⑤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감평가 18억 → 최저가 18억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15층 중 13층 (60평)
감평가 5억8백 → 최저가 3억6천

- ⑦ 서구 용암동 한신아파트
15층 중 1층 (24평)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8천9백

010-6670-9800

010-7384-7800